

[보도자료] 부산 밤바다를 환하게 밝힌 ‘무도키즈’의 여름 축제!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 성황리 종료!

2025. 9. 1.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 참가자들이 10km 레이스 직후 열린 특별 공연을 즐기고 있다.

- 부산 광안대교를 가득 메운 함성, 팬들이 ‘무한도전’ 정신으로 완성한 나이트 레이스
- 광안대교 10km 레이스부터 해변에서 펼쳐진 특별 공연까지, 부산 밤바다를 열기로 물들인 ‘무도키즈’

2025. 09. 01. - 지난 8월 30일(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이하 ‘무한도전 Run’)이 광안리 일대를 ‘무한도전’으로 가득 물들이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울에 이어 두 차례 걸쳐 이어진 ‘무한도전’ 20주년 축제는, 전국에서 모여든 ‘무도키즈’들이 부산 밤바다를 열기로 채우며 다시없을 감동과 낭만을 완성했다.

광안대교에서 펼쳐진 10km 나이트 레이스, ‘무한도전’ 정신으로 빛나다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 참가자들이 광안 일대를 배경으로 10km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 행사에서는 여름 밤바다와 광안대교가 배경이 되어, ‘무한도전 Run’만의 특별한 나이트 레이스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소지섭 리턴즈> 특집을 오마주한 하와이안 셔츠를 맞춰 입고 불빛 가득한 다리 위를 달리며 “무한~도전!” 구호로 서로를 격려했고, 광안대교 전체가 ‘무한도전’만의 낭만으로 가득 차오르는 장관이 펼쳐졌다.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10km 레이스 완주에 도전하고 있는 정준하

특히 정준하는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10km 레이스에 도전하며 ‘1시간 내 완주’라는 새로운 목표로 팬들과 함께 달렸다. 그의 완주 성공 여부를 맞히는 현장 투표 이벤트에는 수많은 팬들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응원을 보냈다. 비록 목표 시간은 넘었지만, 끝까지 완주한 정준하를 위해 피니시 라인을 가득 메운 팬들은 환호를 터뜨리며 감동의 장면을 만들었다. 중계 채팅창 역시 “누구보다 근성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정준하!”, “서울 때보다 정준하 잘 된다”, “정준하 힘내!! 완주 투표 완료”, “대단해요!!!! 완주 축하합니다!” 등 응원이 쏟아지며 현장과 중계 속 팬들 모두 ‘무한도전’ 정신으로 하나가 됐다.

광안리에 울려 퍼진 ‘무한도전’, 반가운 얼굴들이 불러온 그때 그 시절의 감성



시그니처 구호와 함께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 오프닝을 연 ‘무한도전’ 멤버들

이번 행사의 공식 하와이안 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무한도전’ 멤버들이 “무한~도전!”을 외치자, 광안리 현장은 단숨에 2000년대 여름 특집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곧이어 박명수, 정준하가 ‘부산’ 이행시로 티키타카를 펼치자, 팬들은 만형들의 케미에 폭발적인 환호를 보냈고, 멤버들의 재치 있는 멘트와 팬들의 웃음이 교차하며 ‘무한도전’만의 감성과 낭만이 동시에 살아났다.



‘무한도전’ 레전드 캐릭터 할마에(염정인)를 따라 에어로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여기에 ‘무한도전’ 레전드 캐릭터들의 귀환도 이어졌다. 할마에(염정인)가 등장하자 현장은 환호로 뒤덮였고, 특유의 카리스마로 광안리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에어로빅 물결로 만들었다. 또한, 친근한 목소리로 현장 안내를 맡은 시영준 성우, 힘찬 신호탄을 쏘아 올린 ‘무도 단골’ 박문기 심판까지 더해지며, 참가자들은 매 순간 ‘무한도전’ 감성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해변에서 펼쳐진 피날레 공연, 무도가요제 떠올린 추억과 감동의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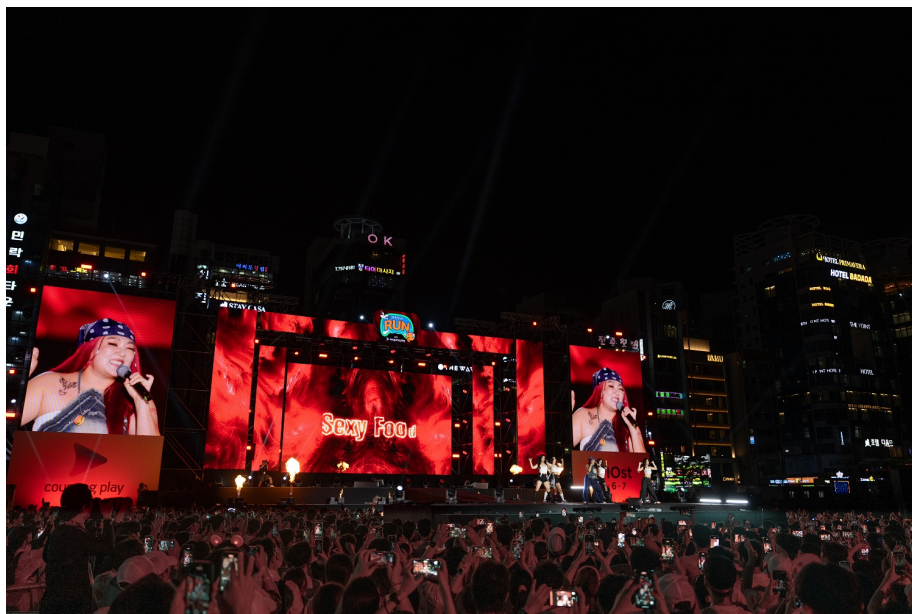
나이트 레이스가 끝난 뒤에는 피날레 공연이 이어지며 낭만이 절정에 달했다. G.PARK(박명수), 정준하, 스컬&하하(RGP), 전진 등 ‘무한도전’ 멤버들은 물론, 햄부기(이수지), 조남지대(조세호&남창희), 주주 시크릿(박진주&이미주), 십센치까지 총출동해 ‘무도가요제’의 감동을 그대로 재현했다.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 특별 공연 아티스트 정준하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 특별 공연 아티스트 하하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 특별 공연 아티스트 ‘햄부기(이수지)’

특히 조남지대는 ‘다시 듣고 싶은 무도가요제 1위 곡’ 말하는 대로 를 커버해 팬들의 떼창을 이끌었고, 무도가요제가 낳은 아티스트 십센치는 하하와 함께 <참쌀떡>으로 무대를 열며 현장을 감성으로 물들였다. 각 아티스트가 준비한 ‘무한도전’을 추억하는 무대가 이어질 때마다 팬들은 감동의 환호를 보냈다.

‘무한도전’ 세계관에 흠뻑 빠진 ‘무도키즈’들의 현장 참여 열기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세워진 '무도리 에어벌룬'

이날 광안리 곳곳은 '무한도전' 세계관으로 채워지며, 그 시절의 감성을 불러일으켰다. 광안리해수욕장 중앙에 세워진 거대한 '무도리 에어벌룬'은 이번 축제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양쪽으로 마련된 포토존들은 마치 '무한도전' 레전드 특집 속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추억의 장면을 재현하듯 포즈를 취하며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장감과 레전드 예능의 감성을 온몸으로 느꼈다.





각자의 개성대로 한껏 '무한도전' 감성을 뽐낸 '도전! 베스트 드레서' 후보자 및 수상자

현장의 분위기는 '도전! 베스트 드레서' 이벤트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 무대를 메운 참가자들이 '쫄쫄이 군단', '소년명수', '무한도전 휴가 특집' 러너 캐릭터로 차례차례 등장하자, 관객들은 폭발적인 환호를 터뜨렸다. 무엇보다 이 순간은 참가자들이 기록에 집중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무한도전'스럽게 축제를 즐기는 방식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완성됐다.

'무한도전 Run'의 낭만을 실시간 전달한 쿠팡플레이 생중계

쿠팡플레이는 광안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생중계를 선보였다. 중계석에는 '무한도전' 원년 멤버 출신 이병진 해설위원과 정용겸 캐스터, 그리고 박명수가 함께 자리하며 팬들의 반가움을 자아냈다. 특히 박명수는 레이스 완주에 도전한 정준하를 실시간으로 짓궂게 놀리며 유쾌한 입담을 펼쳐 현장에 웃음을 더했다.

생중계로 함께한 팬들도 "밤에 광안대교 달리는 건 낭만이네", "다 똑같이 옷 입은 거 너무 귀엽다", "와 이제까지 봤던 마라톤 중에 제일 낭만 있다", "광안대교 진짜 뛰어보고 싶다" 등 열띤 반응을 쏟아냈다. 현장의 열기는 생중계를 통해 생생히 전달돼, 시청자들 역시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하며 마치 부산에 있는 듯한 현장 분위기를 함께 즐겼다.

현장을 직접 찾은 팬들의 열기 역시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뛰는 내내 웃으면서 뛰고 힘든거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 행복했다", "하루종일 뜨거웠던 분위기 속에서 괜히 뭉클해버렸다", "내 인생에 마라톤은 없을 줄 알았는데, 무도키즈라서 해냈다", "정말 말로 표현할수 없을만큼 짜릿하고 황홀했다", "무도키즈라 행복해요" 등 감동의 물결이 이어지며 이번 '무한도전 Run'이 기록 경쟁이 아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완성됐다.

쿠팡플레이 김성한 대표는 "이번 '무한도전 Run'은 부산의 감성과 '무한도전'의 유쾌한 세계관이 결합해, 새로운 낭만과 감동을 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스포츠, 예능, 공연을 넘나들며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플레이는 현재 '무한도전'의 전 회차 및 24시간 연속 시청이 가능한 라이브 콘텐츠를 서비스 중이다. 쿠팡 일반회원은 라이브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와우회원은 '무한도전'의 전 회차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무한도전 Run with 쿠팡플레이 in 부산'의 다시보기는 쿠팡 와우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